

朴 喜 辰 議 員

“플라워랜드 조성사업 재검토를 통해
진정 시민을 위한 민본행정 구현”

대덕구 제1선거구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쓰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 혁신 교육행정을 추진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박성효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시민들께 행복을 드리기 위한 대전발전의 비전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제162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는 밝고 활기찬 대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생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며,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 구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대전시의 올바른 시정방향과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개선 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 / 별책

본 의원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삶의 질 최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푸르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주변에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공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하고 있는 플라워랜드의 꽃 공원은 이름에 비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특별한 테마도 없어 보이는데,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 공원이라는 거창한 이름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어울리는 공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혈세만을 축내는 애플단지의 공원이 되지 아니할까 우려되는

바, 이런 계획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플라워랜드 꽃 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이 부적합하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전시적인 사업을 중단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고민해 왔던 민본행정을 위한 대안을 시장께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